

중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 중국의 기술규제 단속으로 투자자들이 인도 및 동남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다각화 시도 -
- 중국에 진출한 미국과 유럽 기업들,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계획 연기 -
- 미국과 중국간 해외직접투자 감소 추세, '20년 기준 양국간 투자는 '09년 이래 최저 기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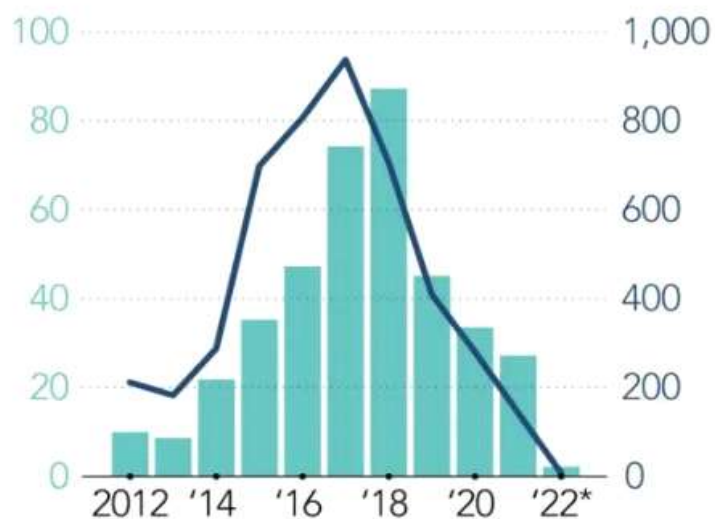
박봉현 책임연구원 · 오기환 센터장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중국의 규제 단속으로 벤처캐피탈 투자 중국을 떠나 인도·동남아로 이동¹

- 리서치회사인 Preqin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투자되는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이 '21년 272억 달러에 달했으나 '22년 5월 현재까지 21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
- 반면에 인도 및 동남아시아에 투자되는 벤처캐피탈 자금은 '22년 5월까지 31억 달러를 모아 이미 지난해 모금액 35억 달러에 근접
- 이러한 중국으로의 투자 감소는 중국이 영리 과외를 금지하여 많은 외국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는 온라인 교육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무력화시켰고, 사용자 데이터 처리에 대한 규제 도입에 따라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형 기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엄격한 단속의 영향으로 해석
- 그나마 중국 정부의 단속을 덜 받는 분야에서는 중국 내 자금조달에 성공함. 헬스케어 회사에 투자하는 Lyfe Capital은 9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펀드를 출시하였으며, 또한 mRNA 기반으로 약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스타나 테라퓨틱스에 대한 투자를 주도
- 중국 정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으나, 동시에 상하이와 베이징의 엄격한 코로나19 규제는 중국 경제를 흔들고 투자자를 불안하게 함

China-focused venture capital fundraising collap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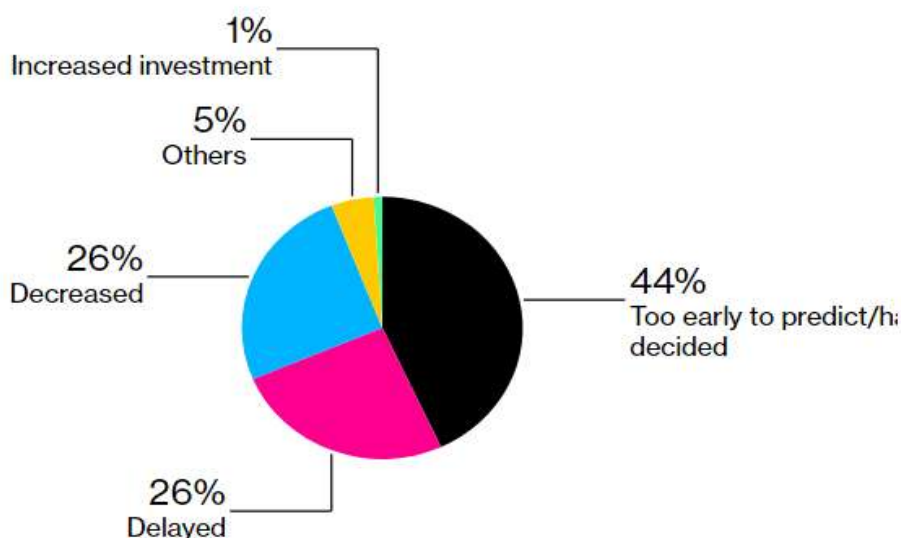
 Fundraising
 (In billions of dollars)
 Number of funds



*As of May 25
 Source: Preqin pro

◇ 미국 및 유럽 기업들, 중국 제로 코로나 봉쇄로 중국에 대한 투자 감소 전망²

- 최근, 중국에 있는 미국 및 유럽 상공회의소는 각각 브리핑을 갖고 중국의 코로나19 제로 정책으로 상하이 등 주요도시가 봉쇄되면서 자국기업들의 중국사업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래 불확실성으로 향후 3년~5년간 중국 투자가 감소될 것이라고 언급함.
- 다만 이러한 상황은 미국 및 유럽 기업들이 당장 중국에서 발을 빼는 것이 아니며,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로 추가로 공급망을 확대하거나 진출한다는 의미임.
- 2022년 5월, 중국에 있는 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52%가 중국에서의 투자를 감소하거나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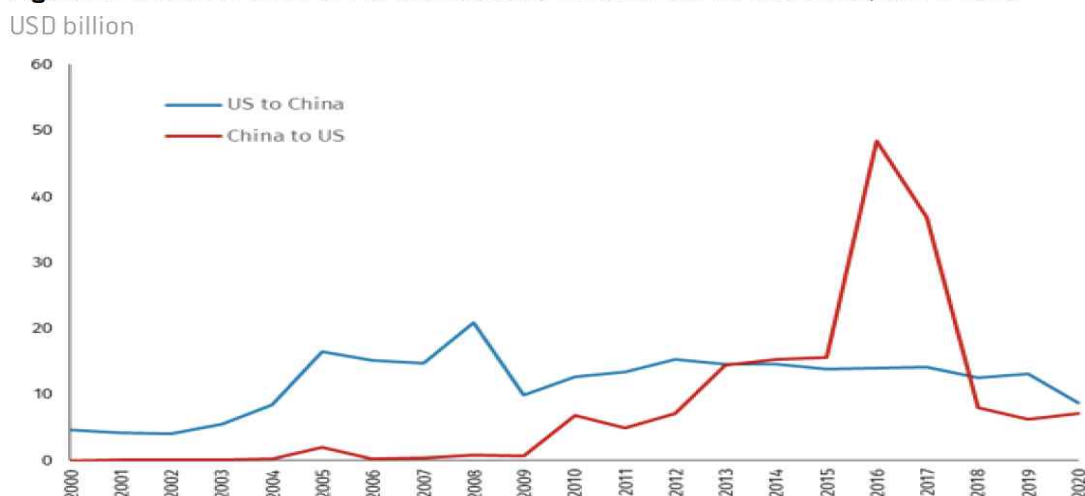
- 또한 2022년 5월 중국에 있는 독일상공회의소가 4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30%가 중국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힘.

◇ 미국-중국간 해외직접투자(FDI) 감소 추세^{3,4}

- 2020년 기준 미국과 중국간 해외직접투자는 159억 달러로 2009년 이래 최저를 기록함
- 2020년 기준 중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72억 달러로 전년도 63억 달러에 비해 소폭 상승함. 중국의 미국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2억 달러로 전년도 23억 달러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총 249개의 거래건수 중 절반 이상인 132개는 바이오 및 제약 분야에 대한 거래였음.
- 2020년 기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87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3로 감소
- 미국과 중국간 직접투자는 2016년과 2017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히 감소 추세로 이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2018년 외국인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인 FIRRMA(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이 발효된 것과, 미국-중국간 디커플링이 계속되면서의 영향으로 분석될 수 있음.

- FIRRMA 법률의 핵심은 외국 자본의 미국 내 투자를 감시하는 투자심사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미국은 중국이 바이오 기술을 빼가는 것을 우려하여, CFIUS 감시 대상 기술 항목에 바이오기술을 추가하였음. 이를 통해 간단한 라이선스 거래에서부터 M&A 거래에 이르기까지 중국 자본의 바이오기술 거래 감시를 강화함.
- 아울러, 2022년 6월 13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의회가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 재건을 위해 미국 기업들의 중국 등 일부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투자심사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Figure ES-1: Annual Value of FDI Transac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2000-2020



Source: Rhodium Group.

◇ 갈 곳 잃은 중국 투자, 어디로 갈지 주목 필요

- 중국의 기술규제 및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중국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중국이나 미국 이외의 국가로 다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음.
- 중국에 진출한 미국 및 유럽 기업들도 향후 계속될 수 있는 중국의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중국 중심에서 중국 이외의 국가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 미국 바이든 정부의 무역 정책, 투자 정책, 공급망 정책 등 중국에 대한 정책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다방면에서 미-중 기업간 교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집중되던 투자 및 해외기업들의 진출이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자료〉

1. VCs raise record funds for Southeast Asia, India as money leaves China, Nikkei, 2022.5.30.
2. US, European Firms Rethink China Investment After Lockdowns, Bloomberg, 2022.5.17
3. Two-way Street – US–China Investment Trends – 2021 Update, Rhodium Group, 2021.5.19
4. Lawmakers Make Bipartisan Push for New Government Powers to Block U.S. Investments in China, WSJ, 2022.6.13